

의사 함께 탑승하는 119소방헬기, 응급환자 생존률 높였다

중증응급환자 발생시 의사가 함께 소방헬기에 탑승 올해 1월부터 시범 운영해, 20건 출동해 15명 생존

소방청은 중증응급환자 발생시 의사가 함께 소방헬기에 탑승해 전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탑승 119소방헬기(Heli-EMS)' 시범운영 분석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의사탑승 119소방헬기는 올 1월20일부터 경기도 북부권역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한 사업이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의사탑승 119소방헬기 출동 건수는 총 20건으로, 모두 중증외상환자였다.

이들은 모두 권역외상센터인 의정부성모병원으로 이송돼, 이 가운데 15명이 신속한

의료서비스로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

의사탑승 119소방헬기는 하루 24시간 가동할 수 있어 야간에 붐과·추락·교통사고·심근경색 등 중증 응급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신속 대응이 가능하다.

운영거리도 최대 400km로 의료 사각지대 해소 및 응급환자의 생존율 향상에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의사탑승 소방헬기 출동대상은 심정지, 심·뇌혈관, 중증외상 등 4대 중증 응급환자다.

헬기에 탑승하는 의사는 소방청과 협력을 맺은 서울대학교병원·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응급의학·외과·화상전문의 등 20명의 의료인력으로 구성됐다.

소방청은 향후 시범사업의 성과분석을 토대로 권역별 여건에 따라 의사탑승 119소방헬기 운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24시간 출동체계가 구축된 소방헬기의 장점들을 살려, 한 명의 중증 응급환자라도 더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중증 외상환자의 끝내달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선욱기자



24년 동안 빠짐없이 찾아온 얼굴 없는 천사

성금을 정리하고 있다. 얼굴 없는 천사는 8006만 3980원의 성금과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불우한 이웃을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라고 적힌 편지를 함께 보내왔다.

27일 전북 전주시 노송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센터 직원들이 '얼굴 없는 천사'가 전달한

'알콩달콩' 이런 부부 보면 재혼하고파...男 '집밥', 女는?

여성 30%는 "마트 함께 가는 부부" 가장 많이 응답

어떤 부부의 모습을 보면 재혼 욕구가 언제 생기는지 묻는 질문에 재혼을 희망하는 남성들은 '집밥 함께 먹는 부부', 여성들은 '마트에 함께 가는 부부'를 꼽았다.

27일 재혼정보업체 온리-유가 결혼정보회사 비에나래와 공동으로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전국의 재혼 희망 돌싱남녀 5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해당 질문에 남성의 29.3%는 '집밥 함께 먹는 부부', 24.2%는 '배우자를 간병하는 모습'을 꼽았다. 여성은 30.1%가 '마트 함께 가는 부부', 24.2%가 '집안 대소사를 함께 처리하는 부부'라고 답했다.

그 외 남성은 ▲집안 대소사 함께 처리하는 부부, 18.0% ▲추운 날 팔짱 끼고 걷는 부부, 14.1% 등으로 응답했다. 여성은 ▲추운 날 팔짱 끼고 걷는 부부, 17.6% ▲종교 활동 함께 하는 부부, 13.3% 등을 각각 3위와 4위로 선택했다.

'사람들이 이혼한 사람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 때 돌싱 신분을 벗어나고 싶은가'에 대한 질문에는 남성 응답자의 33.2%가 '조롱의 대상'이라고 응답했으며, 여성 응답자의 34.0%는 '중고품'이라고 답했다. 이어 남성은 ▲중고품, 30.4% ▲하자 있는 사람, 22.3% ▲결혼 부

직격자, 14.1% 등의 순으로 답했다. 여성은 ▲결혼 부적격자, 28.1% ▲조롱의 대상, 22.7% ▲하자 있는 사람, 15.2%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재혼 상대가 어떤 장점을 가지면 지인들에게 맘껏 과시하고 싶을까"라는 질문에서도 남녀의 답이 같았다. 남성의 경우 '탁월한 외모'로 답한 비중이 31.3%로서 첫손에 꼽혔고, 여성은 35.6%가 '호화 저택 소유자'를 꼽았다.

2위로는 남녀 모두 '환상의 케미'를 선택했다. 남성은 이어 ▲나이가 적음, 22.2% ▲호화 저택 소유자, 14.5% 등으로 답했으며, 여성은 ▲탁월한 외모, 20.2% ▲나이가 적음, 14.5% 등으로 답했다. 김수권기자

"안 접힌 사이드미러 표적"...공항 주차장 차량털이 40대, 검거

196만원 상당 현금 등 절취

인천국제공항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금품을 훔친 40대 남성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인천공항경찰단은 절도 혐의로 A(4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5일 사이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4회에 걸쳐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196만원 상

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 TV를 통해 피의자의 인상착의를 확인, 공항 내에서 범행에 나선 A씨를 발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차량만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씨는 피해자들의 신고를 피하기 위해 차량 내 모든 금품을 훔치지 않고, 일부만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인천지법

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확인된 피해자 이외에도 다수의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확인하고 있는 한편 범행 취약 시간 순찰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조사를 통해 A씨의 죄명이 상습절도로 바뀔 수 있다"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공항 주차장 이용시 차량문 잠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귀중품을 되도록 차 안에 두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슬비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